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속 보

제 14 호 2010 년 7 월 2 일

**GLOBAL  
COMPACT  
KOREA  
NETWORK**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 UN Global Compact 리더스 서밋 2010 결과 요약

(결과 상세 보고서는 후송)

- I. **행사명:**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2010; Building a New Era of Sustainability
- II. **일시:** 2010 년 6 월 24~25 일
- III. **장소:** 뉴욕 Marriot Marquis 호텔 (개막식: 유엔총회장)
- IV. **참가자:** UNGC 회원사 CEO 1300 여명 (90 여개국)
- V. **한국 대표단:** 이승한 흠플러스 그룹 회장 (UNGC 한국협회장), 최태원 SK 회장 (UNGC 국제 이사), 남승우, 강영철 풀무원 사장,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하춘수 대구은행장, 서울대학교 김기호 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방판철 감사, 김영기 LG 전자 부사장, 김명자 보우 실업 사장, 권혁종 카라반이에스 사장, 도영심 UNWTO 스텝재단

이사장, 문국현 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 서영호 경희대 경영대  
학장, 주철기 UNGC 한국협회 부회장/사무총장 등 49 명 참석

## VI. 내용:

### 1. 개회:

A.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UNGC 창립이후 10 년이 지났는데, 기업  
지속가능성이 전세계 기업들 사이에서 보편화되었음. 기업이  
경영과 투자 전략에 지속가능성을 끌어들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최근 금융 위기에서의 교훈을 되새기며 단기적인  
이익뿐아니라 장기적인 가치도 포용해야 함. 이번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성 리더십의 청사진이 마련되는데, 기업이 이를 통해  
새천년개발목표 등 유엔의 목표에도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바람. 2020 년까지 2 만여 기업 및 단체의 UNGC 가입을 목표로  
할 것이며,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시대로의 티핑포인트에  
도달하도록 할 것임.

B.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 지속가능성을 위해 뉴욕시는 특히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30 년까지 현재  
CO2 배출량의 30% 추가 감소를 위한 "Green Building Law"를  
지난 10 월 서명하였음. 비즈니스의 인권 경영은 어느 마케팅이나  
광고로도 얻을 수 없는 소비자의 존경과 지원을 이끌어 낼 것임.  
전세계적으로 더욱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보다 깨끗하고 자유로우며 안전한 곳에서 살게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음.

## 2. 1 세션: 지속가능성 아젠다 구축 -

### **UNGC-Accenture CEO Study on Sustainability 소개:** 100 개국 25 개

산업에서 766 명의 CEO 의 의견을 담고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UNGC-Accenture CEO 스터디' 결과가 소개되었음.

**요지:** 많은 CEO 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추진 의지가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회에 좋은 것이 비즈니스에도 좋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93%의 CEO 들이 기업의 성공을 위해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하였고, 대부분의 CEO 들은 지속가능성 이슈가 변화하고 있고, 그 압력도 증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리더십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UNGC 가 티핑포인트에의 도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이어서 UNGC 10 대 원칙에서 다루어 지는 지속가능성 이슈를 비즈니스에 접목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하였음.

- 책임투자 기관들은 ESG 이슈를 투자 과정에 통합시키기 위한 툴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해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기업 활동에서 인권 가치를 고양하기 위해, 기업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중요한 점이 강조됨.

-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Global Union)은 금융 위기 이후에 더욱더 전세계의 기업들과의 협력을추진 중임. 노동 원칙을 기업 운영에 구체화 시키기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기업의 참여에 힘쓰고 있음.
- 기업들이 내부의 학습 및 리서치 활동에 대학교, 학술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자사와 관련된 경영대학교들이 PRME 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함.
- **\*최태원 SK 회장 발표: 지속가능성 관련,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활동, 한중일 공동 리서치 등 지역 차원 글로벌콤팩트 확산 노력 등을 설명함.**

2 세션: 변화 주도 - "유엔글로벌콤팩트 내의 기업 지속가능성 리더십 청사진"이 소개되었음.

**글로벌콤팩트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Blueprint for Corporate Sustainability**

**Leadership in the Global Compact) 소개**: 점차적으로 복잡해지는 21 세기의 리스크와 기회속에서 기업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 경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UNGC 본부에서 청사진을 마련하였음. 동 청사진은 '전략과 운영에 UNGC 10 대 원칙을 일반화', '보다 넓은 유엔 목표 지원을 위한 행동',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의 참여'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어서 어떻게 하면 10 대원칙을 기업 리더십에 통합시키고, 기업 전략이 유엔 목표에 합치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였음.

- 지멘스 대표는 투명한 시스템 도입과 투명 경영을 위한 공동 행동 추진 후 지멘스의 경영 성과도 확연하게 향상되었다고 하고, 투명경영의 원칙이 '글로벌콤팩트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에 잘 반영되어 있는바, 10 번째 원칙인 반부패를 잘 실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UNGC 원칙의 실행도 어려움을 발표.
-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노르웨이 연금 기금에서는 'expectation document'라는 톨을 만들어 투자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모아 분석하고 있음.
- 기업-근로자와의 관계 에서, 근로안전성 이슈가 매우 중요한데, 국제경영자단체연맹에서는 이를 위해 국제 에너지 노조 등과 함께 산업 부문별 글로벌 협정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이승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발표: 홈페이지의 CO<sub>2</sub> 감소를 위한 전략과 활동, 공급망의 반부패를 위한 전자 입찰 시스템을 소개하였음.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큰바위 얼굴' 경영 전략 등을 설명함.**

3. 3 세션: 개발 달성 - 비즈니스가 기아, 가난, 질병 퇴치 등 새천년개발목표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 공공-민간 협력 등의 방안이 논의 되었음.

- 아프리카에서는 전기 부족이 큰 문제인데, ERI 사는 가나, 나이지리아 등 지역에 고효율 발전기를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에 큰 도움을 주었음.
- China Minmetal Corporations 은 호주 원주민 등 각지 투자처 주민을 고용하며, 이들에게 건설, 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음.
- 비즈니스는 고용 창출, 등을 통해 MDG 달성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음. Oxfam International 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무료 교육 지원으로 3 천만명의 어린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였고, 잠비아에서는 무료 약 제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음.
- 물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23 개국에서 75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CEO Water Mandate 는 그동안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음. “Framework for Responsible Business Engagement with Water Policy”라는 실용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는데, 기업들이 정부 및 시민 사회와 함께 물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한 실용적 지침을 제공할 것임.

\*각 한국 참가자들은 각각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세션의 주제에 관해 토론하였음. 주철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F-2 라운드테이블의 리더로 토의를 주재.

#### 4. 폐회:

참석자 들은 뉴욕 선언(New York Declaration by Business)을 채택하였음. 동 선언은 UNGC 원칙에 대한 새로운 헌신을 권장하고, 금번 채택된 리더십 청사진에 따라, 기업의 더욱 깊은 참여, 중요 개발 목표에 대한 지지 강화, 투명성과 대화의 증대를 촉구함. COP 보고서의 충실한 제출을 다짐함. 또한 정부가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마련에 힘쓸 것을 강조하며, 특히 기후변화 관련한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기를 촉구함. 아울러 MDGs 등 유엔의 개발 목표에 대한 지지를 천명함.

#### 회의 주요 발간물:

1. **글로벌콤팩트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Blueprint for Corporate Sustainability Leadership in the Global Compact***
2. **2009년 글로벌콤팩트 연례 보고서\_ *Global Compact Annual Review - 10th Anniversary Edition***
3. **글로벌콤팩트 CEO 연구 *Global Compact CEO Study***
4. **기업의 책임을 고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Role of Governments in Promoting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Private Sector Engagement in Development***
5. **여성의 지위 향상 원칙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 Equality Means Business***
6. **공급망에서의 지속가능성 *Supply Chain Sustainability: A Practical Guide for Continuous Improvement***

## **VII. 기타 회의**

6 월 23 일 세계 글로벌콤팩트 네트워크 연례 회의가 개최되었고 (주철기 사무총장이 한중일 공동 서베이 결과를 발표), 기타 글로벌콤팩트 인권, 반부패 working group, Caring for Climate, CEO Water Mandate 등 별도 회의들도 개최됨.

## **VIII. Korea Night 개최**

1.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 유엔 한국대표부
2. 일시: 2010 년 6 월 23 일 20:30~22:30
3. 장소: 유엔 한국대표부 청사
4. 참가자: 총 130 여명
5. 내용:
  - 주 유엔 한국대표부 박인국 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승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의 인사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Georg Kell UN Global Compact 사무국장의 축사가 있었음.
  - 최태원 SK 회장의 축배사, 유엔재단 Kathy Calvin CEO 의 연설이 있었음.
  - UNGC 한국협회 활동 및 비전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상영하였음.
  - 한국 기업의 UNGC 에의 참여 의지를 유엔, 정부, 기업 고위 인사에게 알리는 중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됨.



## IX. 기업 정상회의 의의 및 결론:

### 총체적 의의

1. 금번 회의는 UNGC 차기 10년을 위한 리더십을 제시하는 '글로벌콤팩트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을 채택 하였음. 글로벌콤팩트 가치를 세계속에 주류화 시키려는 공통적 의지가 천명되었고, 기업 활동의 유엔의 목표와의 긴밀한 연계가 더욱 강조되었음. (동 리더십 청사진은 추후 배포 예정)
2. UNGC 가치를 실행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툴과 전략들이 마련되었음. (여성의 권한 강화 원칙, 사회투자원칙, 반부패 지침 등 여러 Tool 이 새로 소개되었음.)
3. 앞으로 2020년까지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 회원사를 20000개로 확대하는 노력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한국 관계 의의

1. 국제 CSR 아젠다 설정에 국내 기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음. 로컬 네트워크로는 유일하게 만찬회를 개최하여 유엔, 정부, 기업 등의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의 UNGC 가치 이행의 의지를 알리는 기회를 가졌음.
2. 한국 대표단과 국제기업인, UNGC 국제 이사들 등 중요 CSR 인사들과의 네트워킹 기회가 있었음.
3. UNGC 가치 전파 및 구체화의 측면에서 한국 주요 기업 CEO 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음.

4. 한국 기업이 UNGC 각급 워킹 그룹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필요를 인식하였음.
5. 2012 년 개최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Rio+20)' 준비 과정 등에 한국 UNGC 회원사 참여의 필요성이 공감되었음.

## **결론**

1. 한국 기업의 UNGC 활동 참여를 계속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2. 유엔은 UNGC 회원사의 활동을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더욱 연계하는 방향으로 맞추고자 하는 바, 국내 회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및 보고도 MDGs 에 적극 연계 시켜야 할 것임.
3. 한국 기업의 CSR 우수 사례를 UN 등 국제무대에 적극 소개해야 할 것임.
4. 다음번 Leader Summit 에서는 우리 정부 대표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

첨부: New York Declaration by Business

끝